

Dr. Sherwood Lingenfelter
바이올라(Biola) 대학교 부총장

신앙과 학문의 연계: 바이올라 대학 사례중심 연구

이 글은 금년 4월 한국기독교대학협의회가 주최한 '신앙과 학문의 일치'를 위한 국제 세미나에서 저자가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서 동 협의회의 허락을 얻어 게재한 것이다. 본지 편집부에서 번역의 일부를 수정하고 보충하였다. 바이올라 대학은 미국 로스엔젤레스 근교에 위치한, 기독교적 관점에 입각하여 교육하는 대학이다.

신앙과 학문을 연계시킨다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남과 다르게 연구할 수 있는가? 기독교대학 교수들과 행정책임자들은 미국에서 지난 2세기 넘게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해 왔으나 아직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어떤 교수들은 주장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비그리스도인 동료와 다르게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한다.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기독교적 관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 하나님의 자연 및 특별 계시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교수들은 또한 각 주제

를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도 견해를 달리한다. 혹자는 세속 교실과 다를 수도 없고 달라서도 안된다고 하는 반면, 혹자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주장들을 추적하기보다는 나는 차라리 두 가지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첫번째 이야기는 한 주립대학에서의 15년 교육 및 연구 활동 이후 바이올라대학에 와서 시련과 실패를 통하여 연계화 과업을 배우게 된 나의 개인적인 여정이다. 두번째는 바이올라에서 3년간의 교수 계발 세미나에 참석한 교수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것은 교수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을 교육과 전문적 연구에 연계하도록 준비시키려는 의도의 계획이요 프로그램이다.

나의 개인적인 여정

나는 일리노이주 휘튼에 소재한 휘튼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으로 학부 교육을 받고, 세속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어떠한 공식적 교육 경험으로도 문화의 선을 넘어 사는 도전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는 없다. 피츠버그 대학 인류학과에 들어가 보니, 나의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동정을 표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 뿐이었는데, 그는 나와 같은 대학원 학생으로서 그의 어머니는 Fulton Sheen 감독을 추종하던 이였다. 교수들은 공개적이고도 명료하게 종교적인 신앙이나 경험이 인류학자의 합법적 연구 주제가 되기는 하지만 종교적 입장은 사회 과학에 발붙일 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교수 중 몇 사람은 기독교에 대하여 공공연히 적대감을 표시하였다. 3년이라는 대학원 교육 기간 중 나는 내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침묵하고, 누구와 내 개인 신앙 얘기를 하여야 할지 선별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웠다.

아마도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박사 과정 지도교수가 그의 직업상 후원의 일부로서, 내게 나의 종교적 배경이 나의 직업 생활과 관계가 없으며, 또 나를 최고의 인류학자가 되도록 지도할 마음이 있다고 부드럽게 말한

것이였다. 종교와 신앙이 이 사명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일 이였다. 몇 가지 충격적 경험 후에, 그 중 특별한 하나는 자연 인류학에서 였는데, 나는 인간의 삶과 문화를 연구하는 전문직에 있어서 자연주의 및 진화론적 틀만이 유일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나는 피츠버그 대학을 떠나 뉴욕 주립 대학에서 교육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교수들로부터 배운 인간 및 문화 진화론적 입장을 대체로 견지 하였다.

뉴욕 주립 대학 재직 초창기에 나는 나의 기독교를 조용히 벽장 속에 가둬놓고, 이 방면의 내 개인적인 역사와 삶을 소홀히 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나의 모든 동료들은 비그리스도인이었고, 다시금 종교는 연구할 주제이지, 살아야 할 삶은 아니었다. 15년 동안 나는 인류학과의 학자 및 교수로서 나의 기독교 유산 내지 신앙에 관련없이 연구하고 저술하고 가르치는 습관을 길들였다.

1974년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의 한 선교사가 나의 사회조직론 과목을 수강하였다. 그 학생은 그 해 내 반에서 가장 훌륭한 학생 중의 하나 였는데, 과정 절반쯤 지나서 그녀는 내게 페루에서 그녀의 동료들에게 강의하라는 초청을 제안함으로써 나의 주의를 끌었다. 나는 그녀의 동료들이 세속적 인류학자의 강의를 듣는 일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표하였으나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나를 확신시켰다. 이 대화의 결과로 나와 내 아내는 1975년 언어학하게강좌(SIL)에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M. K. Mayers와 W. Merrifield 두 사람을 만났다. 이 두 사람은 유능한 인류학자이면서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들과의 대화로 말미암아 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새로이 헌신하게 되었다.

뉴욕 주립 대학으로 돌아와서 나는 어떻게 이 갱신된 기독교 신앙을 성장케 하고 인류학에 있어서의 나의 직업적 관계를 계속할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나는 나의 기독교 신앙을 사적인 것으로 간직한 채 예전처럼

변함없이 직업적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언어학하계강좌로부터 그들의 현장 번역팀 구성원들에게 자문을 하도록 요청 받았을 때, 나는 내 학과의 동료들에게 현장 연구와 더 나아가서는 나의 전문적 연구 및 출판물을 계속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는 점을 들어 나의 참여를 정당화시켰다. 내 친구들이자 동료들은 의문을 가졌겠지만 그것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SIL과의 두어 해 자문 후에 나는 인류학과의 동료들에게 '성경 문화'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관한 인류학의 고등과목을 가르치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제의하였다. 나는 그 주제를 인류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며 학부 학생들이 이에 관심을 가질는지 보자고 제안하였다. 마침 우리는 저조한 학생등록으로 문제를 겪고 있었고, 이것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보였으므로 동료들은 이 제안을 환영하였다. 이 과목에서 나는 과학적 자연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종교 분석의 표준적인 방식을 따랐다. 이것은 물론 우리 학과의 연구 틀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과목 수업에서 나는 나의 기독교 신앙을 숨기지 않았다. 내가 이 과목에 초래할지도 모르는 어떤 종류의 편견이든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것과 이 과목에 참석한 몇몇 학생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멀지 않아 학과장은 내가 혹시나 "중생한 그리스도인"인지 물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 사실을 공공연히 고백하였다.

1983년 바이올라대학 교수진에 합류하도록 초청 받았을 때, 나는 철저히 세속적 인류학의 자연주의와 경험론적 관점에 젖어 있었다. 거의 20년 동안 나는 효과적으로 나의 삶에 칸막이를 하여 내 신앙이 직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도록 하고 있었다. 이제 갑자기 기독교 대학에서 학생들과 동료들은 내게 신앙과 학문을 연계시킬 것을 기대하는 것이었다. 20년의 습관은 쉽게 깨지는 것이 아니다. 바이올라에서의 처음 몇 년 동안 나와 학생 모두는 다소간 애를 먹었다. 이들 학생들은 기독교 대학에서 무엇을 얻을는지 확고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나는 그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나의 학생 중 하나는 그녀가 시립대학을 떠나서 바이올라에 온 것은 특별히 내가 인류학 개론 시간에 가르치는 그런 류의 가르침을 피하기 위함인

었다고 심하게 불평하였다. 좀 참아달라고 그녀를 격려하면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개인적 헌신을 확신시켜 주고 내 과목에서 시립 대학에서 가르쳐지지 않는 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그 당시 나는 기독교 관점 및 세계관을 통하여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설명해야 할 중압감에 늘리고 있었다.

거의 같은 무렵 복합문화 연구 대학 학장인 M. K. Mayers 박사가 우리 교수진과 탈봇(Talbot) 신학교 교수진 사이에 매월 정기 모임을 주선하였다. Mayers 박사는 이 모임을 위하여 성경 번역에 있어서 독자적 직역 대역동적 의역, 타문화권 사역에 있어서의 상황화,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문화의 관련성 등에 대한 이들 교수진간의 차이점에 대한 토의를 안건으로 내놓았다. 인류학 및 언어학자들은 서구 신학이 서구 사상 체계에 의존하고 있음에 초점을 두었다. 우리는 교류를 통하여 신학자들이 그들의 문화적 근사안을 넘어서 보는 법을 배우기를 바랐고, 그들은 우리가 문화와 성경 번역에 대하여 상대론적 견해를 수용함으로써 들어선 우리의 잘못된 방식을 볼 것을 기대하였다.

그 다음 두 해 이상 우리는 매월 대화모임을 가졌다. 각 소속 대학의 개인은 그룹 토의를 위한 문안을 준비하여 발표하였다. 어떤 때는 이 모임에 대하여 들은 다른 학과 교수들도 와서 가끔은 더욱 긴장되고 도발적인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듣고 보곤 하였다. 우리는 다른 사상 체계에 대한 서구 사상의 우월성, 성경 번역에 있어서의 독자적 직역과 역동적 의역, 성경 해석의 문제들, 신학 체계가 절대적이 아닌 제한적인 문화일 가능성 등에 관하여 변론하였다. 2년 가량 지나면서 토론에 참가한 많은 이들이 친구가 되었다. 대부분이 느끼기를 각자가 남의 견해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고, 때때로 실제 공통 입장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이 그 2년 동안 이 모임이 아니라면 생각치 않았을 책과 논문들을 읽고 들었다. 이 대화에 관련된 양측 교수진 모두 독서를 제안하였고, 각기 다른 이의 관점을 넓혀주는데 학문적인 기여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보다 폭넓게 읽었고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물론 아마도 원래의

입장에서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겠지만, 보다 성숙한 관점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 경우 그후 3년에 걸쳐 사고 방식에 실제적인 변화를 겪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이 모임을 통하여 얻은 몇몇 친구들과 계속적으로 토론을 하였다. 그 다음의 2년 동안 나는 매년 1월 학기에 한 구약학 교수와 한 언어학자와 함께 읽기와 연구와 대화를 계속하였다. 이 대화들을 통하여 나는 사고를 발전시켜 인류학에 대한 나의 관점을 바꾸고, 기독교 신앙이 나의 직업에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계속하여 글을 썼고 그 2년간의 토론 모임에 관련된 성경 학자들과 신학자들에게 격의없이 내 논문들을 돌릴 수 있었다.

바이올라에서 4년이 찰 때까지 나는 문화와 인류학 연구에 대한 나의 생각의 틀에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나의 인류학적 전제들이 종종 성경에 대한 나의 이해와 모순된다는 사실에 고심하면서, 나는 각개 지식의 원천 간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했다. 나의 생애를 특징지어 온 칸막이 방식에는 더 이상 안주할 수 없었다. 이 두 분야를 통전시키면서 나는 나의 인류학이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여 재정리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많은 딜레마 중에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의 정의와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의 관계일 것이다. 나는 이 주제에 대한 리차드 니버의 고전적 작품을 읽었다. 그것은 기독교 세계가 지난 2000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고심을 해 왔는지를 잘 정리해 주었다. 그리스도와 문화에 대한 어거스틴의 견해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 나는 이 신학적 관점으로부터 인류학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쓴 나의 저술들은 이런 틀 변화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나는 모든 과목을 가르치는데 있어서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5년의 여정 이후에 나는 마침내 신앙과 학문을 연계시키면서 기독교 관점과 세계관에서 사회 인류학의 주제를 가르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교수진을 위한 경험의 재현

1988년 바이올라에서 부총장이 되면서 나는 교수진으로 하여금 대학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돕는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나는 신앙과 학문의 연계 작업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심지어 고참 교수진 사이에도 많은 혼란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0년 혹은 20년 된 교수들조차도 신학적 훈련이나 독서가 자기들의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교수진 중 나와 유사한 경험을 가진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각 교수의 여정이 다소 독특하다고 이해할지라도 세속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리 모든 이들은 (바이올라에서는 교수진 중 3분의 2 이상임) 학문적인 훈련 중에 공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 교수진 대부분은 비기독교인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대부분이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들의 연구에 있어서 엄격하게 경험적인 표준을 적용시키며, 자연주의적 관점과 세계관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도록 도전 받았다. 그들이 학위를 받은 학과의 자세들은 종교의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공공연한 적대적 태도 사이 어딘가에 분포한다. 그 결과 기독교 대학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교수들은 다소간에 어느 정도는 미국 학계를 지배하는 자연주의적 틀에 젖어 있다.

내 동료들 중 일부는 신앙과 학문을 연계시키는데 나보다 더 재빨리 적응하였지만, 나는 교수진 중 많은 이들이 나 자신의 지성적 변화에 매우 중요했던 그러한 대화와 공동 연구의 기회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런 경험이 바로 1992년 바이올라대학에서 교수진 개발 프로그램을 여는 단초가 되었다.

1992년 가을 나는 이 아이디어 중 몇 가지를 Fieldstead 재단의 Howard Ahmanson 부부와 나누었다. Ahmanson 부부는 미국의 고등 교육에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 바이올라와 같은 대학에서 그리스도인 교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학자 및 교사로서 더욱 훌륭하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실험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들은 나에게 내가 복합문화 연구 과정의 신입교수로서 가졌던 경험의 기회를 바이올라의 다른 분야의 교수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방도를 요약하여 건의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Fieldstead 재단에 제출한 건의서에는 다음의 세 가지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1. 바이올라대학의 교수진 사이에 보다 효율적인 다학제간(Multi-disciplinary) 대화를 촉진한다.
2. 교수들로 하여금 기독교와 자기들의 학문분야 간의 관계에 대하여 비평적인 분석, 연구, 저술, 사교의 능력을 갖도록 하되,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과 과학과 경제학의 영향을 고려하여 그렇게 한다.
3. 대학 내와 대학 밖에 까지, 즉 전 교수진, 학생, 주변의 기독교 및 세속 공동체에게 파생 효과를 끼칠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한다.

대화 과정을 위한 특정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교양학과, 각 전공 분야 및 신학 교수진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인식론, 연구와 해석을 위한 틀, 지식의 종합 등의 주제에 관한 대화에 참여하도록 한다.
2. 신앙과 학문의 연계를 참여자들의 학문적 삶에 중심적이고 중요한 초점 문제로 삼는다.

이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교수진으로 하여금 그들의 기독교 신앙과 학문적 관심이 교차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연구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

2. 아이디어, 진행 중인 연구, 출판 전의 논문에 대한 토론을 위한 다
학제간 형태의 토의 기회를 제공하되 외부 학자들에 의한 평가 기
회를 포함한다.

이 계획은 교수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기회를 창출한다. 우리 기독교 대학의 대부분 교수들은 자신들의 기독교 신앙을 자신들의 학문 분야와 연계시키려는 의욕과 깊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이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의 본래의 개인적인 동기가 부족하기 보다는 막중한 수업 부담과 상담과 행정 업무의 요구 때문이다. 대학의 일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별 관계없거나 심지어는 상충되는 방향을 추구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한 아마도 있게 되겠지만, 이럴 때 자기 분야 밖 동료들과의 활발한 대화는 행정 또는 교수진에 의한 징계보다 더 효과적으로 자신을 바로잡으려는 강한 동기를 제공해 준다.

바이올라 연계화 세미나들

우리는 기금 마련을 위하여 Fieldstead 재단에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세미나 전략을 제안하였다. 첫번째는, 교수 연구 세미나로서, 8-10명의 교수진이 학기 중에는 수업부담 중 6시간을 할애 받고 계절학기나 여름학기에는 추가 급료를 지원 받는 방법으로 읽고 대화하고 연구하고 저술할 수 있는 자유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4년의 기간동안에 걸쳐서 Fieldstead 재단은 기독교와 포스트 모더니즘, 기독교와 과학, 기독교와 경제학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둔 세 개의 세미나를 위한 기금을 댔다. 대학내 서로 다른 여러 분야 교수들이 이들 세미나에 지원했다. 각 세미나마다 탈봇 신학교의 교수진 중 적어도 두 사람을 포함시켰다.

교수 연구 세미나 프로그램이 소수의 교수진만 수용할 수 있음을 인식

한 우리는 이에 대체할 만한 계절학기 신학 세미나 프로그램을 제의하였다. 이는 보다 많은 교수진을 위하여 대화와 연구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세미나는 신학적 훈련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16-20명의 전임 교수에게 급료를 지불하면서 1월 중 3주 동안 각자의 전공 분야에 있어서의 연계화를 주제로 하여 신학서적 읽기, 대화, 집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탈봇 신학교 교무처장인 Mike Wilkins 박사는 매 1월 이 세미나 프로그램을 후원하였고, 우리는 외래 학자들을 초빙하여 참가 교수진의 읽기와 연구를 인도하도록 하였다. 드루(Drew)대학의 Thomas Oden은 첫 해에 초대 교회 교부들의 신학에 관한 세미나를 인도했다. J. I. Packer는 둘째 해에 청교도에 관하여 강의하였다. 그리고 J. Stackhouse와 K. Kantzer는 세째 해에 각각 1주일 동안 복음주의 신학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이 모든 세미나에 참가한 교수진은 특별히 각자의 전공 분야와 토론과 강의에서 얻어진 바, 각자의 분야에 대한 신학적 관점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어 논문을 썼다. 세 명은 2000불의 급료를 받아, 계절학기 수업 책임을 면제받고 이 세미나에 참가하여 집필하도록 격려를 받았다.

교수 연구 세미나

3년에 걸쳐 바이올라 교수진 중 26명이 위에 말한 세분야의 교수 연구 세미나에 참여하였다. 각 세미나마다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과 과정이 있었다.

참가한 모든 교수들은 예외없이 그들의 세미나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임들이 항상 편안하였거나 모든 사람의 기호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그 반대였다. 첫 두 세미나의 참가자들은 그 해 말에 세미나 진행에 대하여 좌절감을 느꼈다. 이들 두 그룹은 세미나 진행자의 아이디어를 거부하며 그 일로 그 해 내내 고생했다. 세번째 세미나에서는 참가자 중 한 사람을 진행자로 뽑았는데, 그 해가 끝나갈 무렵에 이르러서는 이들은 함께 만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다음

해까지도 모임을 계속 가졌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예외없이 세미나 기회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다. 다음은 참가교수들의 경험담의 일부이다:

- 평상시의 교육부담으로는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없다. 1년 동안 수업부담을 줄여주고 동료들과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은 큰 선물이다. 매 월요일 오후 동료들과의 토론회에 앉아서 나는 많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 그 세미나는 내 분야에서 많이 논의되어 온 주제이지만 나로서 시간을 투자할 수 없었던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그 세미나는 매우 서로 다른 학문 간의 독특한 관점들을 섭렵하는 매우 도전적인 것이었다. 미술, 영문학, 역사, 그리고 신학 등의 관점은 나의 사고에 큰 자극과 풍부함을 주었다. 내가 전에 몰랐던 시각들을 얻게 되었다.

- 세미나의 중간에 마치 내가 훌륭한 대학원에 다시금 다니는 기분을 느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그 기회를 충분히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달랐다. 내 학문분야에서 일정수준에 올라 있었고 내 나침의 강의를 안정되게 이끌고 있던 상황에서, 이 모든 사람들과 모여 읽고 토론하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이었다.

세미나 참가자에게 이 세미나가 그들의 학문적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점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공통적으로 대답되었다:

1. 기독교와 그 세미나 주제에 대한 새로운 문헌과 지식에 실질적

으로 접할 수 있었다.

2. 대학 전체의 동료 사이의 관계 증진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중 두 세미나는 특히 교수들간에 신뢰를 쌓았고 서로의 연구에 대해 상호 정직한 비평을 교환할 수 있게 해 주었다.

3. 1년을 꼬박 함께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유익을 주었다. 동료간에 신뢰를 쌓을 시간을 주었고 읽고 연구하고 긴 대화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이 세미나가 지적이고 전문적인 성장과 전체 대학사회 내의 교류를 위한 매우 훌륭한 기회로 보았다. 모든 세미나는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토의를 시작하였었다.

연구 세미나의 강점 중 하나는 참가자들의 다양성이었다. 각 그룹마다 다양하게 섞이게 된 것은 참가자 자신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러한 다양성은 역동적이고 도전적임이 입증되었다. 각 세미나마다 복음주의 좌우 노선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참가하였고, 정치적 견해도 다양하였으며, 전공 분야도 다양하였다. 함께 읽은 것을 가지고 토의할 때,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전공의 시각과 세계관을 통하여 상호간에 도전을 주었다. 한 참가자가 자신의 연구를 발표할 때면, 동료들은 그의 전공입장을 떠나서 생각해 볼 것과 폭넓은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내용 전달하기를 요구하여 도전을 주었다. 이러한 학제간 성격의 다양성은 특히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그리고 경제학과 기독교의 세미나에서 효과적이었다.

각 세미나는 또한 외부학자 초빙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포스트모더니즘 세미나는 USC의 Dallas Willard 박사가 하루 동안 철학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개괄적 강의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같은 워크숍에서 버지니아 대학의 James Hunter 박사와 고든-콘웰 신학교의 David Wells 박사는 전 교수에게 포스트모더니즘과 그 문화와 신학에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하였다. 그 해 늦게 버클리 대학의 Robert Alter 박

사는 1월의 계절학기동안 사흘동안 그 자신의 연구와 참가자들의 연구를 놓고 대화를 가졌다. 드루 대학의 Thomas Oden 박사는 일주일간 그의 생각과 시각에 대하여 참가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참가자들의 전문적 연구 관심사에 대해 집단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대화를 가졌다. 그해 봄, 어바인 (UC Irvine)대학의 John Carlos Rowe 박사가 하루의 회합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듀크 대학의 Stanley Hauerwas 박사가 저녁식사 모임에서 전 교수진에게 강연하였다. 이들 외부학자들의 세미나에의 기여는 매우 큰 것이었다.

각각의 세미나마다 독특한 성격이 있었지만, 모든 참가자들은 몇몇 초빙 학자들이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고 자극과 도움을 주었다고 느꼈다. 참가자들은 초빙학자들이 방문하기 전에 그들의 출판된 저작을 읽었으며 그들의 방문시에 상호관심사에 대해 토의하였다. 몇몇은 이 세미나 기간동안 알게 된 초빙학자와 계속하여 교류하고 있다.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예술 분야의 교수들과 섞인 점은 독특한 상승작용의 기회를 창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근거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처음부터 모든 세미나 참가자들은 성경의 권위와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들였다. 그룹 안의 성경학자들은 규명과 비평을 위한 원천이 되어 주었다. 세미나의 다른 구성원들은 종종 이들의 견해나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대화를 통하여 참가자들은 서로를 연마하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실질적인 기독교적 관점을 계발하기에 이르렀다. 모든 참가자들은 세미나 후에 많은 새로운 자료와 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그들의 강의로 돌아 갔다.

다음은 세미나 참가자 중의 경험 기술이다.

- 인식론의 문제는 내 교실에서 종종 제기된다. 내 학생들은 “해석학에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 세미나 전이라면 나는 저자의 의도를 알아 내는 것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주장해야 하게 되었다. 믿음과 앎의 역할은 포스트 모던 사고방식에 단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복음 주의자들로서 우리는 확실성의 문제, 앎의 문제, 그리고 믿음의 인식론적 중요성에 대한 문제에 고심해야 한다.

- 문헌이나 권위에 의존하여 답을 얻지 않고서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가? 만일 구세계가 권위에 의탁하고 있다면 새로운 세계는 상충하는 문제들에 의지하고 있으며 영성에서 답을 구하고 있다. 현대성의 해체는 학생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좇지 않고 문제를 탐색하게 하고 있다. 교수로서 나는 한 문제에 대한 권위적인 해답을 주기 보다는 학생들과 함께 경험을 나눌 수 있다. 우리는 학생들이 그 문제들을 우리와 함께 탐색토록 하면서도 많은 기독교적 맥락을 포함시킬 수 있다.

- 이 세미나는 내 전공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성해 주었다. 도덕발달의 분야는 콜버그(Kohlberg)의 연구에 매우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학적 세계관의 전통과 철학으로 부터 온 현대문화에 속한다. 초기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잘 연구할 수 있는가를 묻기 보다는 사람의 행동을 측정할 통계적 방법에 패념하였다. 우리는 정량 가능한 것들을 측정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하면서 정량 불가능한 것들, 예를 들어 사랑, 책임, 또는 문화의 영향에 의한 영혼의 손실 등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연구 세미나는 모든 참가자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일부는 그들의 학문 분야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얻었고 그 학문적 시각과 기독교 신앙 사이의 긴장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 예술분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 내가 전공분야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이미 그 분야는 포스트모더

니즘의 물결이 휩쓸고 난 후였다. 세미나에 참가하기 전까지 나는 얼마나 내 학위과정의 훈련이 포스트모던 시각에 경도되었던가를 알지 못했다. 세미나는 내 전문적 삶의 기초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학제간 경험을 가지고 상호간 대화를 가지며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중요하다. 나는 교회가 그렇듯 현대성에 자리잡고 있고 내 전공분야가 포스트모던적이었는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것이 내가 수년간을 지니고 살면서도 손을 대지 못하던 모순이었다. 그러한 이분법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나는 교회를 문화의 맥락에서 보지도 못하였다. 신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행한 연구를 읽는 것은 큰 도움이 되었다. Stanley Hauerwas의 강연과 세미나에서 얻은 성경적 조망은 내게 큰 희망을 느끼게 해 주었다.

과학과 경제학 세미나의 참가자 사이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있었다. 다양한 전공의 참가자들은 생각하고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정리된 시각과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가르치도록 서로 도움을 주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의 관심분야에 직접 연결된 맥락에서 체계적인 읽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읽고 쓰고 있는 것들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신학적 문제들을 깊이 다루게 되었다. 공식적인 과목수강식이었다면 그들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유익을 줄 보장이 없는 상당히 다른 경로를 거쳤을 것이다.

이들 세미나에 참가한 학자들의 학문적 결과는 매우 예측가능한 것이었다. 높은 수준의 학문적 활동을 하다가 세미나에 들어왔던 학자는 그 경험을 활용하여 의미있는 새로운 연구와 저술활동을 하였다. 논문저술이 적었던 학자는 세미나에서 읽고 대화하며 큰 유익을 받기는 했어도 그 과정으로 인해 저술이 활발하게 변하지는 않았다. 모든 참가자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주어진 논문요구를 충족시켰다. 일부 참가자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그들의 전문적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연구를 출판하였다. 참가자

들은 모두들 자신의 강의 과목이 세미나 주제와 겹치는 부분에서 그 강의를 개정하게 되었다.

계절학기 신학 세미나

계절학기 신학 세미나는 그 초점과 진행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각 세미나는 대개 세미나를 인도한 초빙학자에 의하여 그 특색이 정해졌다. Thomas Oden은 16명의 참가자와 함께 읽고 토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매일 아침 세미나 인원이 모였을 때 Oden박사는 문제를 제시했고 아침 내내 그날 읽을 거리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가교수들은 금새 서로 알게 되었고 초대 교부들에 대해 읽은 것에 초점을 맞추어 신학적인 문제들과 씨름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JI. Packer교수는 매일 청교도의 신학에 대해 강의하고 청중에게 질문을 허용치 않았다. 읽은 것과 강의 내용에 대한 교수 간의 대화는 세미나 중의 점심시간에 이루어졌다. Stackhouse와 Kantzer는 그들의 복음주의 신학에 관한 주제에 대해 강의하고 질문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여러 방식의 강의와 토론,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식사 시간에 초빙학자와 가지는 주제토의를 즐겼다.

계절학기 세미나에 참가한 각 교수는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읽기와 강의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학적 자료들을 자신의 전공 분야 연구나 교육적 관심사와 연결시켜야 했다. 이들 주제는 역사, 철학, 영어, 화학, 심리학, 음악, 경영학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다양하였다. 이들 논문을 쓰면서 참가자들은 세미나의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관심분야에 직접 적용하는 기회를 가졌다. 일부 교수들은 세미나 중 쓰여진 논문들을 세미나 후에 출판하기도 하였다.

계절학기 신학 세미나 참가자들은 모두가 이 경험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초빙 강사들을 높이 평가했으며, 대학내 동료들을 알게 된 것을 기뻐했다. 이들 세미나에서 생각지 못한 결과 중 하나는 서로 다른 분야 간에 대화가 심분 고양되었다는 점과 교수진 간에 공동체 의식이 더욱 깊어졌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세미나가 시작될 때 서로를 알지 못했지만, 세미나가 끝날 때 까지는 서로 잘 알게 되는데 그치지 않고 많은 새로운 친구 관계가 생겨났다.

모든 계절학기 세미나 참가교수들은 참가 기회를 감사하였고 학기중 접하게 된 신학적 내용에 몰입되었다. 초대교회 교부들에 관한 세미나에 참가했던 교수들 중 많은 수가 처음에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되는 읽을 거리들에 위축되었다. 세미나가 끝날 때 즈음에는 그들은 모두 새로 배운 것에 대해 기뻐하였고 초대 교부들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청교도 세미나 참가자들은 신학의 독서와 연구에 의욕을 가지게 되었으며 청교도가 현대의 복음주의에 전해 준 유산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계절학기 신학 세미나를 위하여 Fieldstead 재단이 내놓은 기금은 해마다 대략 55,000불이었으며, 참가 교수들에게 끼친 영향은 심대한 것이었다. 이렇게 예산이 제한된 경우, 계절학기 세미나는 교수들을 신학적 사고에 접하게 하고 그들의 학문분야 내에서 신학적 연구와 연계를 시작하도록 격려하고 준비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이 증명되었다. 88